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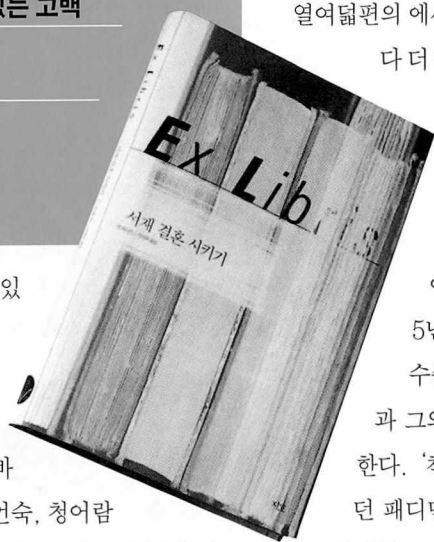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자인 앤 패디먼이 들려주는 독서에세이다. 소설을 읽듯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이 책에서 지은이는 책과 동거동락해온 자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책을 읽는 목적이 '읽는 재미'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독서론을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책이 있어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책갈피산책

## 《서재 결혼시키기》

책과 동거동락해온 평범한 독자의 의미 있는 고백

앤 패디먼 지음 | 정영목 옮김  
지호/A5년형/224면/12,000원



책읽기, 독서론에 관한 책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 메뉴로 나오는 항목이 책을 읽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저자들 나름의 독서법 등이다. 지난해 화제가 됐던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이연숙, 청어람 미디어)처럼 금방이라도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욕심이 들 만큼 실용적인 독서론을 소개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독서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었나?》(에너 퀸들런, 임옥희, 에코리브르)처럼 어린 시절의 독서가 성인이 돼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호소력 있게 다룬 책도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자인 앤 패디먼이 《서재 결혼시키기》(정영목, 지호)를 보냈다.

### 솔직함과 담백함 묻어나는 아름다운 책 이야기

이 책의 미덕은 내용의 신선함에 있다. 바로 이 점이 앞서 소개한 두가지 유형의 독서론과 차별된다. 지은이는 다카시처럼 실용적인 독서술을 소개하지도, 퀸들런처럼 독서의 효용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의 독서체험을 통해 "한 가족의 책과 말에 대한 사랑,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해진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뿐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지은이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시빌리제이션》지에 '평범한 독자의 고백'이라는 고정 칼럼으로 연재했던 글들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평범한 독자'의 고백이란 점. 물론 앤 패디먼이 미국 《아메리칸 스키타》의 편집자라는 점을 상

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독자의 의미가 작위적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것도 출판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편집자나 독서에 관해서는 최소한 '평범'은 가뿐히 뛰어넘는, 오히려 '전문' 독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은이가 로렌스의 책 여백에 적어둔 짧은 촌평을 읽으며 열여덟살의 첫경험을 떠올리고, 아버지 서가에서 몰래 꺼내 읽은 《파니힐》을 통해 섹스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대목에 이르면 그의 거침없는 솔직함에 파안대소하게 된다.

지은이는 그저 책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책 속에 파묻혀 자라고, 책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고, 또 자식 둘을 낳아 함께 책을 읽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책을 매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깔끔하고 재치 있는 열여덟편의 에세이를 통해 보여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어찌 이보다 더 평범할 수 있겠는가.

### 책이 있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

이 책의 들머리에 소개된 '책의 결혼'은 지은이 부부가 각각의 서재를 하나로 결혼시킨 이야기다. 지은이는 서로 알게 된 지 10년, 함께 산 지 6년, 결혼한 지 5년만에 마침내 두 사람이 "장서 합병이라는 좀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이를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나의 책과 그의 책이 우리 책"이 됨으로 진정한 결혼을 이뤘다고 말한다. '책벌레 이야기'에는 책과 어휘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패디먼 가족의 유쾌한 일화가 소개되고, '나의 자투리 책꽂이'에선 고생대 후기 식물의 화석이 박힌 돌 하나와 목숨을 맞바꾼 스코트 대령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외식을 하러간 식당에서조차 메뉴판의 오자를 지적하는 등 교열 강박감에 사로잡힌 별난 가족들의 이야기와 책이 묘사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책을 읽는 매력적인 현장 독서 체험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 책은 《뉴욕 타임스》가 지은이에게 보낸 헌사처럼 "기꺼이 집안에 들여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싶은 똑똑하고 귀여운 책"이다. 지은이가 들려주는 개성 있고 유머 넘치는 글들은 한편의 희극처럼 유쾌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평범한 독자를 자처하는 비범한 지은이는 책 속에 우리의 삶이 '책이 있어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새겨놓았다. 마치 소설을 읽듯 책장을 술술 넘기다보면 독자들은 문득 삶의 예지처럼 빛나는 독서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만나게 된다.

TV와 인터넷, 대중매체의 홍수에 떠밀려 책이 외면당하는 시대다. 이 책을 읽고 이만하면 한때 책을 사뿐히 쓰러 밟고 떠났던 독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엿봤다면 너무 큰 바람일까. 또 아니라면 어떨까. 이 책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책에 온통 지문을 묻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지혜를 얻었으니 말이다. —박옥순 기자